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<b>보도자료</b>	2026. 5. 7.(목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<b>농업기술원</b>		미래농업육성과장	양석철	☎760-7300
		업무담당자	윤찬일	☎760-733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760-7514

## 제주형 스마트팜 ‘제빛나’ 시범사업 본격 추진

- 시범농가 4개소 현장 실증 돌입...제주형 과학 영농 확산 기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스마트제어·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‘제빛나’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 도내 시설농가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.
- ‘제빛나’는 농업기술원이 지난해(2023년) 직접 개발한 제주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다. 기존의 단순 감시 수준을 넘어, 축적된 생육·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해 하우스 환경을 알아서 자동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.
  -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센서 기반 구동기 자동제어 및 관수 예약 설정 등의 스마트 제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생육 범위 제공 및 선도 농가 데이터 비교 등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이 지원된다.
-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연구 중인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육관리모델의 성과를 실제 농가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.
  -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도내 레드향 재배 농가 4곳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, 개소당 1,200만 원(보조 70%, 자부담 30%)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구동기 제어장치, 환경 측정장

치, CCTV 등 스마트팜 필수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.

- 시스템 설치 후에는 단계별 생육 상태와 품질을 정밀 조사하고, 노동 투입 시간 절감률, 시스템 활용도,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.
- 도는 향후 현장 시연회와 결과 평가를 거쳐 ‘제빛나’ 시스템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.
- 운찬일 농업연구사는 “제빛나 시스템 보급으로 시설 환경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농가의 노동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” 며 “제주 지역에 딱 맞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